

사설

불교TV 재기 힘 실어주자

불교TV는 1만 명의 포교사를 배출한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머지않아 위성을 통한 전파발사가 실현된다면 불교TV는 전세계 인류의 교화사(敎化師)로 나서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 불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불교TV의 위력은 어떠한가 능히 가능해 볼 만하다.

모든 불자들의 염원은 불교TV를 살려야 한다는데 있다. 불교TV는 불교신자 모두가 하나같은 염원으로 개국에 동참하여 무려 180억원이라는 재원이 간절할 신심에서 열출되었다. 불교TV의 개국은 시청률에서나 광고에 있어서도 타 방송보다 월등한 발전 가능성에 우리 모두 호모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게 변하였다. 물론 IMF라는 사정도 있었겠지만, 방만한 경영과 과다한 직원 채용, 거기에다 종단분규에 편승한 파행운영 등이 원인이 되어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정재(淨財)를 탕진했다. 급기야는 100억원의 빚더미만을 짊어지고 파산 위기에 직면하여, 지난 4월부터 프로그램 제작 중단상태로 이어졌다.

그 동안 명목상의 사장들이 부침하면서 불교TV는 포기상태여서 선뜻 나서지는 종단도, 단체도, 독자기도 없었다. 완전한 절망상태에서 불자들의 안타까운 신심을 저버리지 못한 석성

우 스님을 비롯한 경영진과 현재 남은 25명의 직원이 사력을 다하여 숨통을 틔우고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8월 1일부터 뉴스를 비롯한 4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신규제작하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체제로 돌입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원 파이낸스의 악성부채 20억원이 목을 죄고 있는 있지만 새로운 경영진에 참여할 이사 출연금 2억원씩 15명만을 확보한다면 송송이 열릴 것인데, 이에 적극적인 동참이 시급한 문제다.

그 와중에도 매달 광고료와 수신료 등에서 5000만원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며, 경영진의 근검절약 정신과 삼보정재의 인과를 인식하고 기사화생의 의지를 신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불교TV의 미래는 밝다. 차제에 천만 불교신도는 새롭게 태어나는 불교TV를 외면하지 말고 극복과 구원의 비인(悲願)을 발휘하여 불교TV 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불교TV의 새 경영진과 직원들은 살신성인의 구도자적 보살정신으로 인내를 자선으로 삼아 겸손과 검약체제로 새롭게 태어난다면 불자들의 시선도 새롭게 모아지고 동참 의욕도 되살아날 것으로 믿는다.

문화재 500m 보호 환영이유

문화재란 단순한 불거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조상들이 살아간 모습이나 얼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모양은 세월이 씻겨 불뼨이 되어 버렸더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원형 같은 정신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면 문화재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근년에 들어와서 우리들은 문화재를 개발이란 이름을 내걸어 온전한 모습조차 제대로 보전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러 왔다. 문화재가 많다고 한들 이를 온전히 그리고 뜻깊게 보전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부끄러운 일일 것이다. 혹자는 마련된 법이 미흡해서 그렇다고도 하고, 혹자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지 못해서 그렇다고도 한다. 어느 하나 틀린 말은 없었지만 이제 우리도 그동안 소원하게 취급해왔던 문화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또 경주의 남산을 비롯하여 몇몇 문화유산이 더 등재될 시점에 와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두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다.

우선 문화재청이 개정 공포한 내용을 보면 사적지를 비롯한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사전에 문화재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서 문화재 보호의 영역을 넓혀주었다는 점이다. 이 시행령만 잘 지켜도 지금과 같은 난개발에 편승한 문화재의 훼손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문화재는 불교와 연관된 것들이 많다. 문화의 창출이 불교 영향 많이 받았던 역사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지금 남아 있는 대부분의 문화유산이 불교적인 것이라고 이해해도 틀리지 않다. 이런 점에서 온 국민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여 함은 물론이지만, 특히 문화의 중심에 선 불교인들의 각성이 더욱 절실하다.

아울러 문화재로 인해 겪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를 안고 있는 자랑스러운 땅이지만 좁게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 정부는 고도보존법 등의 제정을 통해 온당한 보상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 래야만 그 개인은 문화재를 안고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긍지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고은 칼럼

고은 칼럼



고은시인의 불교계와 사회에 대한 날카롭고 따뜻한 칼럼을 매월 1회 연재합니다. '고은 칼럼'은 고은시인의 문력과 불교사상과 삶을 통찰한 글로 깊은 메시지를 전달 것입니다.

시인·본지 논설위원

고대 원효는 한반도 남부 여러 곳에 그가 떠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가 태어난 신라지역과 함께 백제지역에 그와 관련된 곳들이 아주 많은 것 같다. 나는 한국전쟁 뒤 산악이 초토화 된 시절, 처음으로 광주 무등산에 올라 원효사를 찾은 적이 있다. 그 뒤 부산 변산반도의 한군데 벼랑진 곳에 숨겨져 있는 원효굴도 들어가 앉아 본 적이 있다. 그곳이 진목스님이 공부하던 곳이라면 험사리 믿을 수 있는데 하필 여기까지가 원효굴이라니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어디 이 두 군데 뿐인가. 한반도 중부에도 원효를 내걸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원효사, 원효암, 원효대 그리고 원효굴들이 다 '원효'라는 이름으로 과시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원효는 고대 민중들에게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신라 정치이념으로서의 불교가 아닌, 대중들과 함께 사는 불교를 펼쳤으므로 그의 세계는 종법(宗法)이 아니라 무애와 자유가 숨쉬는 화엄세계였다. 당연히 세상 밑바닥의 무지렁이들마저 그를 마음속으로부터 따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던 시대 이후에도 원효라는 이름은 항상 대중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는 파계승이 된 뒤 국통(國統)의 불교에서 추방당함으로써 그의 대중불교가 본격적으로 시

작된 것이다. 그는 신라 상층의 여러 가능성을 보유했던 사람이다.

회랑은 국가 인물을 배출하는 젊은 귀족공동체인데 그 역시 그런 화랑이었고 또 일찍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한 공주의와 인연으로 아들을 두게 되기도 한다. 그러기 전에 한 여왕의 흠모도 받았다. 마음만 먹으면 그는 얼마든지 승려로서도 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세속을 지향했다면 정부의 요직도 차지했을 것이다.

이런 신분을 전민이나 백성들과 어울리는 무애춤을 추는 때들이 바쁘으니 대중의 전설은 폭발적으로 번져 갈 수 밖에 없다.

원효...의상...미라래빠...

최치원...정약용...함석헌

수많은 전설과 인물들

그래서 통일 전후의 국토의 모든 곳은 원효와 관련된다. 그가 사흘만 머문 곳이면 3년 수도를 한 곳이 되고 그가 가지 않는 곳도 그가 오랫동안 수도했던 곳으로 되기도 했다.

나는 3년전 티베트에 갔을 때 히말라야 북쪽 기슭의 모든 골짜기와 등골에는 하나같이 미라래빠가 살던 곳이라고 전해오는 것을 알았다. 고대 티베트 사람들에게 미라래빠는 위대한 교사이자 친구였다. 그의 전설은 세월이 갈수록 전해졌고 다채로워졌다. 그의 음유시 10만송(十萬頌)은 겨우 책 한권 분량이지만 10만편이라고 과장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실지로 10만편인데 그 뒤 산실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원효도 시와 논소 등 저작물이 아주 많다. 지금 남은 것은 그중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그런데 원효의 저작들은 그의 생애가 민중과 함께한 것과 달리 비민중적인 학문의 대상이 되고 있거나 관념론의 범주에서 멀리 벗어난 것이 아니다. 기껏해서 승려 입문서인(발심장) 쯤이나 널리 알려졌을 뿐이다.

무엇에 의지한다는 것

앞으로의 원효학은 그의 학문 및 사상의 지적 전개가 그가 산 무애적 민중성과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런 원효인자라 전국의 어디를 가나 원효라는 이름만 걸여놓으면 안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원효는 자주 상품으로서의 원효가 되고 있다.

그런데 통해 낙산사는 원효를 아주 냉대하는 곳이다. 이 점이 아주 매혹적이다. 다른 모든 곳에서 원효, 원효 하고 아다인데 이곳에서만 삼엄하게 원효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낙산사는 의상(義相)의 고장이다.

원효와 의상은 10년 정도의 차이인데 도반으로서 형제를 결의한 사이였다. 두 사람은 함께 당나라로 법을 구하려 떠났다. 첫번째가 육로였다. 그 당시 육로는 고구려를 통과해야 가능했다. 그들은 고구려 영토에서 신라 간첩 혐의의 죄로 체포되었다. 조사해 본 결과 간첩 누명은 벗겨졌으나 본국으로 추방되었다.

두번째는 해로였다. 지금의 전남 법성포나 충남 당진 중의 한 포구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서라벌을 떠났다. 그들은 한밤중에 그 포구에 당도했다. 원효가 해골바가지의 물을 마신 곳이다. 타는 갈증을 그 물로 메웠다. 다음날 아침 그 물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을 때 그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가 깨쳐진 것이다.

원효는 더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 했고 의상은 바다 건너 공부가 기다리고 있다 했다. 두 사람은 헤어져 하나는 국내가 되고 하나는 해외가 된 것이다.

원효가 요석공주와의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상은 당나라 여인 선묘와 절절한 인연을 가지고 있다. 의상이 당나라 화염종의 계승자로서 귀국할 때 그를 한없이 사모하는 여인은 용이 되어 의상의 뒤를 따라 영주 부석사 창건에도 동참한다. 일본의 한 사원 벽화에도 의상 선묘의 신비스러운 연애가 그려져 있다.

하지만 의상은 낙산사에서는 지난날의 어떤 인연도 스며들지 않은 청정한 수행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동행 관음기도는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청정한 곳에 원효가 나타났을 때 통해 관음은 원효가 물 한 바가지 청하자 여자 서담 빨이엔 불그죽죽한 물을 주어 쏘는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원효의 전설이 낙산사에서는 반원효의 전설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원효 말고도 있다. 신라 말 당나라에서 돌아온 최치원도 전설적이다.

그는 중국유학 지식인으로서 그곳에서 문명을 펼친 사람이다. 아니, 그곳의 촉망받는 중견 관리생활도 해본 적이 있다. 하지만 고국에 돌아가 그의 큰 포부를 마음껏 펼쳐보려 했는데 현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무십조(時務十條)'라는 정책실현의 진언은 진성여왕의 눈길을 스쳤을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그는 왕실이나 귀족이 아닌 신분의 한계를 뚫지 못했다. 그는 가야산으로 들어 갔다가 농산정 단풍 속에서 목매어 자살하고 만다.

이 사실이 그가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랐다는 전설로 되어 그의 불운을 미화시킨 것이다.

다만 그의 둘째 아들은 고려 왕조 초기 왕건의 통일정책을 보필하는 사람이 된다. 아버지의 꿈이 자식을 통해 실현된 셈이다. 최치원이 경주에서 태어났다는 사실과 서해안 군산 부근에서 태어났다는 설득력 있는 전설 역시 최치원이 얼마나 민중실화적 전설의 대상인가를 알게 한다. 경남 마산 쪽에서 태어났다는 전설도 있다.

고대에서 훗날 조선후기로 내려와 보자. 거기에 정약용이 있다. 유배생활 20년 세월을 조선의 인문 사회 과학 총림을 완성한 사람이다. 그의

사실주의 시는 지금도 시 정신의 한 규범이 되고 있다. 그는 천주교에 입교했다가 그 통지들이 다 희생당하는 비운을 겪고 그 자신도 죽을 고비에서 천주교를 버리고 살아났다. 하지만 뒷날 그가 천주교로 복귀한 분명한 사실임에도 그를 천주교인으로 확정 짓고 있다. 그만큼 정약용은 우리 민족의 큰 인물이고 그를 교인으로 확정짓는 것은 교세 자체에 이르기 때문인지 모르다.

만약 그가 후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범속한 사람이었으면 한번 배교한 사실만으로 다시 그를 받아들일 까닭이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름없는 사람보다 이름을 떨치는 사람과 함께

너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의지하라

자신의 진면목 만나야 한다

있을 때 세상에 대한 일정한 의미를 성립시키기 쉽다. 가령 7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이름있는 함석헌이 동참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컸다.

그래서 전설적인 인물은 시대의 상징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런 전설은 없는 것보다 있는 쪽이 이 세상을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든다. 다만 그런 전설 혹은 이름을 떨치는 인물이나 가치에 험사리의 타적으로 지배받는 많은 사람들은 자력(自力)의 퇴화로 기울어지고 결코 창조적이지 않은 의존의 개체들로 되기 십상이다.

죽어가는 스승에게 제자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라고 물어보았다. 스승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의지하라"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많은 전설이 필요하지만 그 전설들을 벗어나서 원효를 넘고 정약용을 넘어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만나야 한다. 원효암 대신 무명암에서 살아볼 일이다.

Advertisement for 'Sachal' (사찰) construction services. It features a large central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temple building and several smaller images showing construction stages. Text includes: '스님! 이제 장엄불사 시멘트의 조각성형으로 전통사찰(포작) 그대로 제작해 드립니다', '스님의 평소 주문에 따라 석가래에서 포작까지 일체 제작판매', '설계에서 시공까지', '책임은 확실히하고 약속은 꼭 지키는 기업입니다', '특징: 저렴한 가격, 간편한 시공, 섬세한 마감, 우아함', '사업안내: 콘크리트 법당, 목조사찰건축, 요사채, 콘크리트 성형조각판매', '한국불교전통공사 (고건축사업부)', '서울·중랑구 망우 2동 515-44(창원B/D 402호) 서울전화:(02)494-4890/1(대) 영남(울산):(052)258-2813 제1공장:경기도 남양주시 전건면 송능리237-9 제2공장:경기도 용인시 운학동 590'.